

“알튀세르와 함께 《자본》을 읽자”

본 강의는 루이 알튀세르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월드가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진행한 마르크스의 《자본》에 대한 세미나의 발제문들을 취합해 1965년 11월 출간한 《‘자본’을 읽자》 중 (이론의 여지 없이 이 집단저작의 중핵인) 알튀세르의 두 논문 〈‘자본’에서 마르크스의 철학으로〉와 〈‘자본’의 대상〉을 해설한다. 《‘자본’을 읽자》는 알튀세르가 1965년 9월 출간한 《마르크스를 위하여》(알튀세르 연구자 서관모의 탁월한 번역으로 이미 한국에 소개되어 있음. 《마르크스를 위하여》, 루이 알튀세르 지음, 서관모 옮김, 후마니타스, 2017 참조)와 짝이 되는데, 이 두 저서는 하나의 쌍을 이뤄 프랑스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형성한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내에서도 (서방 마르크스주의의 일환인) 프랑스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정초했다는 점에서, 철학사(특히 현대 프랑스철학의 역사) 내에서도 프랑스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정초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쌍을 이루는 이 두 저서는 프랑스 지성계를 넘어 세계 지성계 전체에서 한 시대를 만들어냈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라는 견지에서, 이 두 저서는 ‘상부구조에 관한 이론’으로서의 서방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정초했으며, 현대 프랑스철학사라는 견지에서, 이 두 저서는 포스트-구조주의로의 이행을 예상하는 구조주의 사유 운동을 형성한 핵심 계기들 중 하나(페르디낭 드 소쉬르, 자크 라캉, 미셸 푸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그것과는 준별되는)를 정초했다. 이 두 저서의 사상사적 독특성은 그것이 중심적으로는 현대 프랑스철학적 사유인 구조주의를 서방 마르크스주의라는 틀 내에서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려 시도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마르크스주의의 측면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포스트-마르크스주의로 탈구축되고 재구축될 수 있는 준거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현대 프랑스철학의 측면에서는 현대 프랑스철학이 또는 (조금 더 좁게는)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가 하나의 심원한 비판적 ‘정치’철학으로 생성변화할 수 있는 준거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준거점은 자크 라캉의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와 평행하는 알튀세르의 ‘마르크스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집약되는데, 이 ‘마르크스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를 위하여 《자본》을 읽자’는 알튀세르의 1965년의 제안이다. 이 두 저서는 하나의 쌍이 되어 마르크스를 위하여 《자본》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결국 ‘증상적으로’) 읽고자 한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이 두 저서는 그 자체로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는데, 이는 한국 학계뿐만 아니라 외국 학계의 경우(심지어는 프랑스 학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한국 학계의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자면, 이는 일차적으로는 이 두 저서의 좋은 번역이 생산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차적으로는 한국에서의 그 복잡다단한 알튀세르 수용사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개조와 전화’를 통한 부활이라는 기획이 지배적이었기에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시기 즉 초기 알튀세르의 이론화가 그 정세적 가치를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사상으로서의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또한 종언을 고하고 그 자리를 포스트-마르크스주의가 이어받았으며, 포스트-담론으로 규정되는(이러한 규정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면) 현대 프랑스철학 또한 포스트-포스트-담론으로 이행하는 또는 교체되는 동시대 비판이론의 지형 속에서, 이러한 동시대 비판이론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동시대 비판이론을 구성한 가장 강력하고 강렬했던 계기들 중 하나라고는 이론의 여지 없이 말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와 구조주의가 교차하던 프랑스 지성계에서 생산된 1965년의 이 두 저서를 다시 한 번 정교하게 독해하는

것은 동시대 비판이론을 더욱 생산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업이다. 심지어 이제 이 두 저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질을 담보한 번역본이 생산되었기에, 이러한 과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견지에서 보자면,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전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이 두 저서를 통해 알튀세르가 정초한 저 준거점 덕에 마르크스주의는 그 지적 유연성과 창조성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성을 지니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로 변모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마르크스주의라는 사상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해 마르크스를 읽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두 선택지가 이루는 원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현대 프랑스철학의 견지에서 보자면, 이 두 저서는 구조주의 운동을 (물론 마르크스주의의 견지에서) 정초한 핵심적 계기 중 하나임과 동시에 구조주의가 좌파 정치철학과 마주칠 수 있게 해준 가교이기도 하다. 이로써 현대 프랑스철학 내 사유 운동으로서 구조주의는 현대 프랑스철학의 바깥(즉 철학의 타자)을 향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 현대 프랑스철학 내 포스트-구조주의라는 흐름을 윤리의 쟁점을 사유하는 하나의 심원한 '정치'철학으로 생성변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이 두 저서는 20세기 비판이론의 핵심적 교차점 중 하나를, 빛나는 중심점으로서, 구성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론적 이유로 본 강의는 《마르크스를 위하여》와의 관련 속에서 《‘자본’을 읽자》를, 그 중에서도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또한 이 《‘자본’을 읽자》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텍스트인 알튀세르의 두 텍스트를 읽는다. 이 알튀세르의 두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 알튀세르(와 그의 제자들) 즉 일군의 현대 프랑스철학자들이 마르크스의 《자본》을 (경제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과 달리) ‘철학적으로’ 어떻게 읽었는지를, 다른 한편으로 알튀세르(와 그의 제자들) 즉 일군의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의 《자본》의 견지에서 마르크스 이외의 철학자들을 어떻게 사유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알튀세르의 때이른 시도는 마르크스주의의 편에서는 현재 ‘새로운 마르크스-독해’로 불리는 독일의 마르크스 연구 흐름과 동일한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현대 프랑스철학의 편에서는 사회적 적대의 물질성에 관한 문제설정을 망각한 포스트-담론의 (더 나아가 포스트-포스트 담론의) 맹점을 이미 선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매우 경탄스러운 것이다.

1965년 《마르크스를 위하여》와 《‘자본’을 읽자》의 출간은 비판이론의 역사에서 지금은 잊혀진 하나의 철학적 계기를 구성한다. 2020년 이후 동시대 비판이론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지나간 자신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재전유 없이 이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진이 힘을 받을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지나간 자신의 역사를 구성하는 이론들이 여전히 현재성을 지니는 것이 맞다면, 이 잊혀진 계기를 복원해 재사유하는 것은 오늘날 지금 여기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과업이다. 《마르크스를 위하여》와의 관련 속에서 《‘자본’을 읽자》를 재전유하는 작업은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는 이이든 아니든, 포스트-담론을 추수하는 이이든 아니든, 포스트-포스트-담론 이전 사유에 주목하는 이이든 아니든, 동시대 비판이론의 자장 내에 있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유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강사: 배세진(정치철학자, 《‘자본’을 읽자》의 공역자, 연세대학교 강사)

* 수강료: 20만원(온라인/오프라인/녹화영상 동일)

* 일시: 1월 3일 ~ 2월 28일(매주 수요일 저녁 7:30 - 9:30) 총 9회(1주차 강의는 온라인 무료 공개)

* 장소: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126 4층 캣슬랩(오프라인 수강 20명 선착순 마감, 온라인 제한 없음)

* 문의: catslab126@gmail.com

* 등록: bit.ly/catslab2024-1

주차별 내용

1주(1월 3일 수요일): 최근 출간된 알튀세르의 《역사에 관한 글들》에 관한 무료 공개 대담 - 1주차 무료 강좌만 들으실 분들은 줌으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2주(1월 10일 수요일): 알튀세르의 철학적 궤도 해설

3주(1월 17일 수요일): 《마르크스를 위하여》 해설

4주(1월 24일 수요일): 마르크스의 《자본》 해설

5주(1월 31일 수요일): 알튀세르적 《자본》 독해 해설

6주 (2월 7일 수요일): 《‘자본’을 읽자》 중 〈‘자본’에서 마르크스의 철학으로〉 해설

7주(2월 14일 수요일): 〈‘자본’의 대상〉 해설 (1)

8주(2월 21일 수요일): 〈‘자본’의 대상〉 해설 (2)

9주(2월 28일 수요일): 강의 내용 전체 종합정리

강의 형식

강사의 강의로만 진행,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당일 참석이 힘든 수강생을 위한 녹화영상 제공)

수강 대상

알튀세르의 철학 전반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2024년 출간될 《‘자본’을 읽자》를 번역자와 함께 미리 읽어보고 싶은 일반 시민, 현대 프랑스철학 일반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프랑스에서의 마르크스 《자본》 독해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마르크스의 《자본》 일반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강의 난이도

대학교 1학년 교양강의 수준(알튀세르의 철학, 알튀세르의 《‘자본’을 읽자》, 마르크스의 《자본》 등에 관해 수강생이 사전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강의)

강의 교재

2024년 상반기 진태원, 배세진, 안준범, 김은주의 공역으로 출간될 《‘자본’을 읽자》 중 진태원 번역의 〈‘자본’에서 마르크스의 철학으로〉(루이 알튀세르) 중 일부(진태원 교수의 허락을 얻음)와 배세진 번역의 〈‘자본’의 대상〉(루이 알튀세르) 전체(추가적으로는 배세진이 번역한 에티엔 발리바르의 《‘자본’을 읽자》 ‘3판 전체 서문’과 에티엔 발리바르의 2019년 헝가리어 완역본을 위한 새 서문인 〈“‘자본’을 읽자”를 읽자〉). 편집 이전의 최종 번역본을 PDF 형태로 제공.

강사 소개

1988년 서울 출생. 정치철학자이자 문화연구자.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문화연구 전공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론의 재구성: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의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프랑스 파리-시테 대학교(舊 파리-디드로 7대학) 사회과학대학의 ‘사회학 및 정치철학’ 학과에서 푸코와 마르크스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같은 대학원 같은 학과 정치철학 전공에서 이 논문을 발전시킨 『푸코-마르크스주의와 화폐: 노동-가치, 물신숭배, 권력관계 그리고 주체화』라는 논문으로 정치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매체와예술 연구소 연구원이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문화연구 전공 강사이다. 미셸 푸코, 루이 알튀세르, 에티엔 발리바르, 자크 비데, 주디스 버틀러의 현대 프랑스철학을 사회과학 내 문화연구의 틀에서 연구·번역하고 있다. 에티엔 발리바르의 『마르크스의 철학』, 『역사유물론 연구』 그리고 『개념의 정념들』(근간), 루이 알튀세르의 『무엇을 할 것인가?』, 『검은 소』, 『역사에 관한 글들』(공역), 제라르 뒤메닐·에마뉘엘 르노·미카엘 뢰비의 『마르크스주의 100단어』와 『마르크스를 읽자』(공역), 자크 비데의 『마르크스의 생명정치학』과 『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 피에르 부르디외·로제 샤르티에의 『사회학자와 역사학자』(공역), 프레데릭 그로의 『미셸 푸코』, 폴린 그로장의 『가부장 자본주의』 등을 옮겼다. 또한 2024년 그린비에서 출간 예정인 루이 알튀세르 외 저 《‘자본’을 읽자》를 공역했다.

<강의의 주제와 문제설정>

강의 구성

본 강의는 총 9강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강의 즉 0번째 강의는 강사가 최근 출간한 역사 《역사에 관한 글들》에 대한 대담으로 진행된다. 비수강생에게도 공개되는 이 무료 강의에서는 《마르크스를 위하여》와 《‘자본’을 읽자》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와 역사학에 관한 알튀세르의 이 ‘수수께끼’ 같은 유고집을 대담을 통해 해설한다. 이는 특히 우리의 강의 대상인 《‘자본’을 읽자》와 함께 읽을 때에만 이 유고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점은 근본적으로 알튀세르가 ‘역사라는 대륙을 발견한 역사과학자’(문제적인 통념이라는 점을 인지한다는 조건에서 이 표현을 활용하자면)로서의 마르크스와 그의

‘과학적’ 저서(이 또한 문제적인 통념이라는 점을 인지한다는 조건에서 이 표현을 활용하자면) 《자본》에 기반해 역사와 역사학을 사유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 강의까지는 《‘자본’을 읽자》를 우리 논의의 중심 대상으로 취한다. 그러나, 2024년의 《‘자본’을 읽자》 출간에 맞춰 이제까지 제대로 읽히지 않아온 이 저서 중 가장 중요한 알튀세르의 두 텍스트(《‘자본’에서 마르크스의 철학으로》와 《‘자본’의 대상》)를 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에도 이 강의는 《마르크스를 위하여》에 대한 논의를 생략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두 저서가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마르크스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를 위한 ‘마르크스를 위하여 《자본》을 읽자’라는 테제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알튀세르의 철학적 궤도를 매우 간단히 그려본 뒤, 이 궤도의 출발점을 구성하는 1965년의 두 저서 《마르크스를 위하여》와 《‘자본’을 읽자》가 궤도 전체의 견지에서, 더 나아가 당대 지성계와 동시대 비판이론의 지형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짚어본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마르크스를 위하여》에 관한 최소한의 해설을 제시한다. 특히 3장 ‘모순과 과잉결정(탐구를 위한 노트)’과 6장 ‘유물론적 변증법에 대하여(기원들의 불균등성에 관하여)’에 준거해 인식의 변증법과 역사의 변증법이라는 이중적 견지에서 헤겔 관념변증법의 마르크스 현실변증법으로의 탈구축과 재구축을 설명한다. 《‘자본’을 읽자》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현실변증법의 확인이라는 이론적 정향 속에서 마르크스의 《자본》을 철학적으로 읽는(그래서 ‘증상적으로 독서’하는) 작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 그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제시한다. 물론 강의자의 《자본》에 관한 설명이 ‘중립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일 수는 절대 없다. 강의자의 《자본》에 관한 설명은 철저히 포스트-알튀세르적 《자본》 독해를 이해하기 위해 정향된 것으로, 이는 《‘자본’을 읽자》를 독해하기 위한 최소한의(그것도 편향된) 배경설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자본》에 관한 알튀세르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읽기의 생산물로서 《‘자본’을 읽자》의 핵심 관념인 인식론적 이중성, 현실대상과 인식대상(사고대상)의 구별(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사유-구체 개념), 《자본》의 서술방식과 연구방식의 구별, 《자본》의 서술방식에서 역사와 논리 간 관계(와 서술방식으로서 변증법의 문제)을 다룬다. 이러한 알튀세르의 논의를 집약하고 있는 텍스트가 알튀세르가 자신의 동료 제라르 뒤메닐의 저서 《‘자본’의 경제법칙 개념》을 위해 집필한 ‘뒤메닐 서문’(《제라르 뒤메닐의 저서 “자본”의 경제법칙 개념”의 서문》)인데, 그래서 강의의 말미에는 강사의 번역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이 ‘뒤메닐 서문’을 수강생들과 강독하면서 이 네 번째 강의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자본’을 읽자》의 핵심 단락들을 함께 읽는다.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특히 《‘자본’을 읽자》 중 《‘자본’에서 마르크스의 철학으로》의 핵심 단락들을 읽으면서 ‘증상적 읽기’(번역본에서는 ‘증상적 독서’로 번역됨. 일반적으로 ‘징후적 독해’로도 광범위하게 번역됨.), ‘현실대상과 인식대상의 구분’, 이로부터 도출되는

‘사유-구체’라는 개념, ‘구조인과성’ 개념, 이러한 이론화들을 요약하는 개념인 ‘인식효과와 사회효과’ 등의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학습한다.

여섯 번째 강의와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자본’을 읽자》 중 〈‘자본’의 대상〉의 핵심 단락들을 독해한다. 〈‘자본’의 대상〉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경제학적인 독해 그리고 역사학적인 독해가 놓치고 있는 지점, 즉 《자본》의 인식론적 대상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논의가 바로 앞서 다루었던 증상적 독서라는 일종의 ‘방법론’, 현실대상과 인식대상의 구분, 그로부터 도출되는 사유-구체라는 개념, 서술방식과 연구방식의 구분, 서술방식에서 역사와 논리 간 관계의 문제, 헤겔 변증법과 마르크스 변증법 간 종별성, 인식에서의 변증법과 역사에서의 변증법 등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속에서 〈‘자본’의 대상〉을 정밀하게 독해하면 이 적지 않은 분량의 텍스트 전체가 단 하나의 주제, 즉 고전파 정치경제학과 준별되는, 마르크스가 설정한 《자본》의 인식론적 대상은 도대체 무엇인지(더 나아가서는 왜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주의가 아닌’지 -물론 알튀세르의 역사주의에 관한 비판은 오늘날 발리바르 등에 의해 비판받고 있지만-, 왜 마르크스의 역사적 시간에 대한 개념화는 헤겔의 이데올로기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화와 다른지 등)에 대한 해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덟 번째 강의는 진도가 밀렸을 경우 이를 해소하고 그 뒤 지금까지의 논의를 테제 형식으로 요약, 정리한다.

참고문헌(수업시간에 실제로 언급 또는 활용할 참고문헌만을 언급)

《‘자본’을 읽자》, 루이 알튀세르, 에티엔 발리바르, 자크 랑시에르, 피에르 마슈레, 로제 에스타블레 지음, 진태원, 김은주, 안준범, 배세진 옮김, 그린비, 2024, 근간, 번역 완료[에티엔 발리바르의 2019년 헝가리어 번역본을 위한 새 서문인 〈“‘자본’을 읽자”를 읽자〉와 에티엔 발리바르의 ‘3판 전체 서문’ 수록].

《마르크스를 위하여》, 루이 알튀세르 지음, 서관모 옮김, 후마니타스, 2017.

《알튀세르의 철학적 유산》, 윤종희, 박상현 외 지음, 공감, 2008.

《알튀세르와 정신분석》, 파스칼 질로 지음, 정지은 옮김, 그린비, 2019.

《마르크스의 ‘자본’》, 윤소영 지음, 공감, 2009.

《자본론 1-1》, 카를 마르크스 지음, 채만수 옮김, 노사과연, 2018.

《생각하는 마르크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백승욱 지음, 북콤마, 2017.

《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 메타구조란 무엇인가?》, 자크 비데 지음, 배세진 옮김, 생각의힘, 2021.

〈거짓 문제로서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증상적 독해〉, 진태원 지음, 《비평과 독해》, 2021, vol. 26, n. 3(통권 제55호).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자본”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오기만 했다. 하지만 왜 이러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자본”을 변형하기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자크 비데 지음, 배세진 옮김, 《웹진 인무브》, 2020.

〈제라르 뒤메닐의 저서 “자본”의 경제법칙 개념〉의 서문), 루이 알튀세르 지음, 배세진 옮김, 《웹진 인무브》, 2018.

《마르크스를 읽자》, 미카엘 뢰비, 에마뉘엘 르노, 제라르 뒤메닐 지음, 김덕민, 배세진, 황재민 옮김, 나뭇잎, 2020.

《마르크스의 철학》,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 배세진 옮김, 오월의봄, 2018.

〈알튀세르의 ‘최종심급’ 개념〉, 최원 지음,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 에디투스, 2019.

〈마르크스로 돌아가자: “마르크스를 위하여”(루이 알튀세르 지음, 서관모 옮김, 후마니타스, 2017)에 대한 서평〉, 배세진 지음, 《에라스무스》, 2023.

〈필연적이지만 불가능한: 한국에서 알튀세르 효과〉, 진태원 지음, 《황해문화》, 2020년 9월(통권 제108호).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낸시 프레이저 지음, 장석준 옮김, 서해문집, 2023.

〈알튀세르의 “자본” 독해〉, 자크 비데 지음, 강희경 옮김, 《알튀세르 효과》, 진태원 엮음, 그린비, 2011.

《스피노자의 철학》, 질 들뢰즈 지음, 박기순 옮김, 민음사, 2001.

〈알튀세르의 철학적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필연적이면서도 불가능한 시도: 과천연구실의 집단저작 “알튀세르의 철학적 유산”(윤종희·박상현 외, 공감, 2008)에 관하여〉, 배세진 지음,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20권 제1호.

* 수강료: 20만원(온라인/오프라인/녹화영상 동일)

* 일시: 1월 3일 ~ 2월 28일(매주 수요일 저녁 7:30 - 9:30) 총 9회(1주차 강의는 온라인 무료 공개)

* 장소: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126 4층 캣츠랩(오프라인 수강 20명 선착순 마감, 온라인 제한 없음)

* 문의: catslab126@gmail.com

* 등록: bit.ly/catslab2024-1